

4주 1일

빌 3:1-2

1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 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2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 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2 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동역자들을 보내는 데 대한 언급은 바울의 서신들의 끝부분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된다. 이것은 바울이 2장의 마지막에서 이 서신을 끝맺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더 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언급한 후에도 그의 부담을 여전히 다 말하지 못했다. 바울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유대교도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다. 나는 이것이 3장의 서두에서 주제를 바꾼 이유라고 믿는다.

3 장 1절에서 바울은 『그 밖에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고 말한다.

「수고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싫증나는」, 「지루한」, 「귀찮은」을 의미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수고롭거나 싫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안전 장치요 보증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쓴 것은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안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3장 1절과 2절 사이에 연결됨이 있음을 가리킨다. 빌립보에는 안전 장치, 즉 일종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은 유대교도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였다. 따라서 믿는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한 후 바울은 그들에게 개들과 악한 일꾼들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말한다(2절). 「조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늘 경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사도는 빌립보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게 늘 유대교도들을 조심할 것, 즉 경계할 것을 경고한다.

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은 매우 강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비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다. 침례 요한과 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다(마 3:7, 12:34). 침례 요한이나 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사실을 말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솔직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로 독사의 자식이었고 유대교도들은 참으로 개들이었다.

3 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들은 불결하고(레 11:4-8), 일꾼들은 악하고 손할례당은 경멸당하는 사람들이다(절단을 의미하는 손할례당은 할례당 대신 사용된 경멸적인 용어이다). 개들은

3 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악한 일꾼들을 삼가고 손할레당을 삼가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 사이에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들은 불결하고(레 11:4-8), 일꾼들은 악하고 손할레당은 경멸당하는 사람들이다(절단을 의미하는 손할레당은 할레당 대신 사용된 경멸적인 용어이다). 개들은 유대교도들을 말한다.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불결한 개들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악한 일꾼들이고, 종교에 있어서는 손할레당 즉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에 관한 책에서 사도는 이방 신자들에게 그러한 불결하고 악하고 경멸당하는 사람들을 삼가라고 경고한다.

— — — —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다.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하여 빌립보서의 각 장들이 주요점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1장에는 그리스도의 확대가 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빌립보의 믿는이들이 유대교도들의 영향을 이기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도 또한 오늘 직면하고 있는 대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를 누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교적인 「개들」이 「짚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 반대는 너무 격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우리의 본과 목표와 능력으로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체험은 모든 반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17장, 1장)

4주 2일

빌 3:3-6

3 ¹하나님의 영으로 ²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³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⁴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4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5 나는 ¹팔 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²이스라엘 족속의 ³베냐민 지파이며, ⁴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고, ⁵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6 ¹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²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3¹ 3장 2절과 3절에는 다음과 같은 삼중의 대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믿는 이들과 개들의 대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는 이들과 악한 일꾼들의 대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믿는 이들과 살이나 베어 내는 이들의 대조이다.

3² 이 절에 있는 ‘봉사하고’와 2장 17절에 있는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제사장의 봉사를 의미한다.

3³ 여기에서 육체는 우리의 온 존재와 타고난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유대교도들이 할례를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 영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이다.

3⁴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참되게 할례를 받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다(참조 갈 5장 각주 11¹과 골 2장 각주 11²). 그들은 유대교도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약의 믿는 이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봉사하지 않고,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영을 신뢰한다.

5¹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할례 받는 날(창 17:12). 사도 바울은 팔 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이스마엘 자손(이스마엘은 태어난 지 십삼 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창 17:25)들이나 유대교를 믿은 후에 할례를 받은 개종자들과는 구별되었다.

5²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속이며, 참된 야브라함의 씨(롬 11:1, 고후

11:22)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족속에게 접붙여진 개종자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5³ 사랑스럽고 신실한 지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 곧 왕의 도시가 그 지파 가운데 있었다(신 33:12).

5⁴ 히브리인의 혈통을 지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

5⁵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며, 이 율법은 모든 정통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것이다.

5⁶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파(행 26:5, 23:6), 즉 모세의 율법에 대단히 열성적인 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마태복음 3장 각주 7¹ 참조.

6¹ 모세의 율법과 유대 종교를 위한 열성을 가리킨다(갈 1:14과 각주 14¹).

6² 즉, 나무랄 데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입증된. 이것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로운(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무랄 데가 없는 육체는 하나도 없다(갈 2:16하).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유대교도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러한 자격 목록을 제시했다. 바울은 한 때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의 그는 과거의 그의 어떠함과 전혀 달랐다. 이것은 빌립보에 있는 믿는이들에게 유대교도들을 따르지 말라는 강한 암시였다.

3 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바울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도 관련된다. 바울이 유대교도로서 남아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 즉 하나님의 그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매우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도 또한 육체나 천연적인 능력이나 유전이나 전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진 것이다.

4주 3일

빌 3:7-8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1그런 뿐만 아니라 내가 2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3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4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5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6그리스도를 얻고,

각주에서 발췌

8¹ 3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이다. 이것은 계단과 같이 우리를 점점 더 높이 이끌어 3장 11절에 있는 정점에까지 이르게 한다.
8²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3장 5절과 6절에서 열거했던 이전 종교에 속했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8³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다. 바울도 한 때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에(갈 1:15-16),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고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탁월한 율법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8⁴ 3장 5절과 6절에서 율법과 열성과 의를 말하면서 세 번 사용된 ‘...으로 말하자면’이라는 표현은 ‘...에 따라서는’으로 번역될 수 있다. ‘... 때문에’라는 표현은 3장 7절과 8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두 번 사용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을 말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율법, 율법에 대한 열성, 율법의 의와 대조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것과 율법에 대조된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율법에 대한 열성과 율법의 의와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율법이나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킨다.

8⁵ 개들에게 던져 주는 찌꺼기, 쓰레기, 오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가 먹는 것, 곧 똥을 의미한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8⁶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인격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이 몸을 지니신

분이시며(골 2:9),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그림자의 실재이다(골 2:16-17). 어떤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엡 3:8)을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 올 때 이 서신의 심장부에 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7 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말한다. 이것은 5절과 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인하여」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모든 다른 이익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전에는 바울에게 유익이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그를 방해하고 저해했다. 그러므로 모든 유익들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에게 해가 되었다.

계속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이전의 종교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해로 여겼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지적할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을 버려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다. 3장 8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러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이 구절들은 알은 것이 아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피상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는 주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하고 있지 않다. 그의 관념은 더 깊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에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국민적 논리와 민족적 철학과 우리 속 깊이 감추어진 것들에까지 관련되어 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주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쳐두기는 매우 어렵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그들의 민족적 철학과 국민적 논리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18장)

4주 4일

빌 3:8-9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¹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합니다. ²내가 가진 의는 ³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⁴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⁵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⁶의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⁹¹ 과거에 바울은 완전히 유대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께 돌이켰을 때, 그는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고후 12:2). 이제 바울은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 즉 유대인들과 천사들과 귀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열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그리스도는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빌 1:20).

⁹² ‘내가 가진 의는 ... 아니라 ...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던 상태를 보여 준다. 바울은 자신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초월한 상태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
⁹³ 3장 6절에 언급된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의.
⁹⁴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로마서 3장 각주 22¹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감상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상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며, 그분은 우리

의 믿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⁹⁵ 즉, 믿음의 기초나 조건에서,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곧 최고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기초이며 조건이다(고전 1:30).
⁹⁶ 이 의는 우리가 살아 낸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이다. 그러한 의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 9절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8절과 연관시켜야 한다. 8절의 끝을 9절의 시작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선포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의 손실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더 나아가 바울의 갈망은 그 자신의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3 장 9절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8절과 연관시켜야 한다. 8절의 끝을 9절의 시작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선포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의 손실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더 나아가 바울의 갈망은 그 자신의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얻었다. 그는 유대교에 있었을 때 율법 아래 있었다. 바울은 열심히 율법의 지식을 탐구했으며 그것을 추구했다. 그에게 율법의 지식은 매우 탁월한 것이었으며 그는 심지어 율법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시려고 바울의 눈을 여셨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으로 돌아섰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갖는 것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시를 얻은 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직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그를 얻도록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8 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9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이것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은 한 가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무한량함과 만유를 포함함에 관한 계시를 보았을 지라도 나는 윤리와 문화와 선한 행위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방문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인가? 당신이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전환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한다 해도 이것이 단지 하나의 선포일 뿐 실제적인 체험의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다. 5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8절과 9절에 있는 그의 갈망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들과 친척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급우들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종교와 철학과 문화는 무력해진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0장, 51장, 20장)

4주 5일

빌 3:9-10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1그리스도와 그분의 2부활 능력과 그분의 3고난의 교통
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각주에서 발췌

10¹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체
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
님에게서 나온 의를 가진 상태에서 살
았다.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
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계
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
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며, 그
분을 충분히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바
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
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을 추구했다.

10²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
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그분
의 부활 생명이다(엡 1:19-20). 그리스
도의 부활 능력의 실체는 그 영이다(롬
1:4). 이 능력을 알고 체험하려면 그리
스도의 죽음과 동일화되어야 하고, 그
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
다. 죽음은 부활의 근거이다. 그리스도

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
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
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표
현될 수 있도록 그분의 부활 능력이 일
어날 근거가 된다.

10³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마 20:22-23, 골 1:24). 이것은 그
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그분의 부활 능력(딤후 2:11)을 체험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바울은 그리스
도께서 탁월하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 능력과 그분의 고
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기 위
하여,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그다음에 그분
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
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 우리
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죽음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
고 같은 형상을 이루면서 십자가에 못 기 위한 것이다(골 1:24).
박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난은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가 3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이해하려면 이 구절들의 구성 방법
에 주의해야 한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헬라어로 하나의 긴 문장이다.
10절은 「알기 위하여」라는 부정사로 시작한다. 이러한 부정사구(不定
詞句)는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에 관련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를 아는 것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9절의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와 10절의 「그분을 알려 하여」 사이의 모든
단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하는 바울의 상태의 어떠
함을 묘사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
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감수하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
다. 바울의 관념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그
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우리
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
고 또한 모든 것의 손실을 감수하며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가장 존귀함과 뛰어난 가치에 대한 이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지나가 버리게 할 것이며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그
런 다음에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우
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그
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으
로 우리는 분명 그분을 알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1장)

4주 6일

빌 3:10-11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4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1뛰어난 부활에 2이르고자 합니다.

각주에서 발췌

10⁴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활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곧 십자가 아래서의 생활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요 6:57),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체험하기 위한 조건이다.
11¹ 즉,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살전 4:16, 고전 15:52). 그러나 이기

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누릴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각주 35¹ 참조.
뛰어난 부활에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다(엡 2:5-6).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 영에서부터 계속하여 우리의 혼(롬 8:6)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롬 8:11), 결국 우리의 온 존재—영, 혼, 몸—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며,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이다. 그러므로 뛰어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만이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옛 창조물에서부터 새 창조물이 되는 과정을 거쳐, 부활

안에 있게 된다.
11² 즉, 도달하고자.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면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경주에서 승리해야 한다(고전 9:24-26, 딤후 4:7-8).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그분의 부활 생명이이다(엡 1:19-20).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은 부활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분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실체는 그 영이다. 부활은 추상적이고 비밀한 것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실체인 그 영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있다.



3 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계속해 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은 우리가 그분의 고난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그분 속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해방하기 위하여 깨지는 과정을 겪으셨다.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때 깨지셨다.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우리의 존재 안에 심겨졌다. 지금 우리 또한 생명 능력이 씨 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깨져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의 겉 사람이 깨진다면 우리 안의 씨가 생명 능력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겉 사람이 깨지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히 본받는데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러한 길이 우리의 부서짐의 본(本)이자 모형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것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인내가 되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2장)